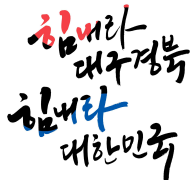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4.29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	담 당 자	김 미 정 사무관 (02-2100-2961) 현 지 은 사무관 (02-2100-2962)	

제 목 :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등을 위한 「보험업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1 추진경과

- 4.29(수), 「보험업법 개정안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
- 동 법안은 이찬열 의원('19.1.31), 고용진 의원('19.7.29), 유동수 의원('19.8.23) 대표발의 법안을 정무위('20.2.27)에서 통합·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, 법사위 심의('20.4.29)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

2 주요 내용

①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 제고

- 그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사전적으로 규제*하여,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

*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 : 일반계정 30%, 특별계정(변액·퇴직연금 등) 20%

⇒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 자산 운용한도를 일반계정, 특별계정 모두 50%로 완화

② 이해도평가 대상 확대

- 현행 보험업법 상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규정

⇒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 안내 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하여,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(상품설명서)도 포함되도록 개선

<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요>

- (시행) 보험개발원이 연2회 평가 시행
- (방식) 유관기관 추천 소비자대표 6인·전문가대표 4인 평가 및 일반 소비자 평가
- (활용) 이해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, 보험회사에 반영토록 권고
⇒ 이해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

③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

-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* 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, 저축은행, 여신전문회사 등과 달리 회사가 아닌 임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

- * 보험업법 제110조의3(금리인하 요구)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
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⇒ 업권간 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일성 확보, 과태료 부과 수준(2천만원)이 개인 제재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부과대상을 현행 “임원 등”에서 “보험회사”로 변경

3 | 시행시기

- 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